

# 김하성 3안타·배지환 퇴장...희비 엇갈려

올 시즌 처음 펼쳐진 한국인 메이저 리그 맞대결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8)이 판정승을 거뒀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24)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김하성은 2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해 5타수 3안타 2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1회초 김하성은 피츠버그 선발 리치 힐 상대로 좌전 안타를 생산했다. 그러나 후속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병살타에 그치며 추가 진루에 실패했다.

김하성은 패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2회초 2사 만루 찬스에서 힐의 커터를 공략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트리며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재차 출루에 성공한 김하성은 타티스 주니어가 2루수 뜬공으로 물러나며 이번에도 1루 베이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5회초 파울업 삼진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다음 타격에서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7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중전 안타를 쳤다. 하지만 타티스 주

김하성 3안타 2타점 활약에도 팀 3연패 심판 판정에 분노한 배지환, 항의...1타점 2삼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왼쪽)이 27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2회 초 2타점 적시타를 치고 나가 1루 코치와 세리머니하고 있다.

니어가 또다시 병살타를 쳐 아웃됐다. 9회초 1사에서 마지막 타격에 임한 김하성은 3루수 땅볼로 돌아서

다. 김하성은 시즌 2번째 3안타 경기를 완성했고,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51

에서 0.258로 올랐다.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배지환은 타점을 추가했지만, 안타를 치지 못했다.

첫 타석부터 기회를 잡았다. 2회말 무사 1, 3루에서 출격한 배지환은 희생플라이 타점을 기록했다. 이후 3회말 1사에서 헛스윙 삼진, 5회말은 선두타자로 나서 파울업 삼진으로 침묵했다.

배지환은 6회말 2사 2루에서 4번째 타격에 임했으나 퇴장 명령을 받았다.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난 2루째 몸쪽 공에 항의하자 주심이 골장 퇴장 지시를 내렸다. 판정에 분노한 배지환은 계속해서 주심에게 어필했지만, 퇴장 명령은 번복 되지 않았다.

이날 배지환은 2타수 무안타 1타점 2삼진 성적으로 경기를 마감했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42에서 0.239로 하락했다.

한편 김하성의 활약에도 샌디에이고는 패배를 떠안았다. 투수진이 피츠버그 타선 제어에 실패하며 4-9로 졌다. 샌디에이고는 3연패 늪에 빠졌고, 피츠버그는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뉴스



대한민국 여자 배구 21연패 27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철보체육관에서 열린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3주차 여자배구 대한민국 대 불가리아의 경기, 4세트 대한민국 주장 박정아가 득점을 올리고 김다은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

## 전남, 화합·감동 체전 전문가 머리 맞대

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 방향 논의



전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회의실에서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전 국민 화합·감동 체전으로 이끌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과 연출, 공연, 디자인, 문화예술, 미디어,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0여 명의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이 참석해 연출 방향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명성 총감독은 시청각 설명회(프레젠테이션)를 통해 '개·폐회식은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체계를 활용해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주제 공연 등과 연계한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만물의 원천인 생명을 깨우고 지키고 이어감을 울림이라는 추상적 단어로 압축해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양 체전의 개·폐회식 연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개·폐회식 연출주제인 '생명의 울림 속으로'와 전남의 미래비전을 재해석하고 그동안 현장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살린 분야별 연출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 호 기자

## KIA 이의리, 1군 엔트리 말소... "휴식 차원"

키움 정찬현도 휴식 위해 1군 제외

KIA 타이거즈의 좌완 영건 이의리가 한 차례 쉬어간다.

KIA는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벌어지는 2023 신한은행 SOL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의리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이날 선발 등판하는 신인 좌완 윤영철이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개막부터 꾸준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 이의리는 15경기에서 6승 5패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다.

최근 세 차례 등판에서 이의리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16일 NC 다이노스전에서 3%이닝 동안 3개의 안타와 6개의 볼넷을 내주고 7실점하며 무너진 이의리는 22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도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4%이닝 4피안타 4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전날 키움전에 선발로 나선 이의리는 4%이닝 2피안타(1홈런) 6볼넷 5탈삼진 6실점으로 무너졌다.

김종국 KIA 감독은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리에게 휴식을 주기로 했다.

키움의 베테랑 우완 투수 정찬현도 같은 사유로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키움 관계자는 "선발 투수들에게 돌아가며 휴식을 주고 있는데 정찬현이 한 차례 쉬어갈 차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KT 위즈전에서 8회 등판했다가 교체된 후 과격한 행동을 해 18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끝판대장' 오승환(삼성 라이온즈)도 얼음을 채운 이날 1군 엔트리에 복귀했다.

삼성 오승환을 등록하면서 좌완 투수 박세웅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4월 30일 잠실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한 이의리.

팀K리그-A.마드리드 친선전 28분 만에 입장권 매진

2022~2023시즌 유럽축구 트레블(3개 대회 우승)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다음달 방한한다.

발처부터 열기가 뜨겁다.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되는 팀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음달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갖는다. 30일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같은 장소에서 대결한다.

지난해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잉글랜드)의 방한을 이끌었던 '쿠팡플레이 시리즈'다. 쿠팡플레이는 26일 오후 1시 진행된 팀K리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예매가 개시 28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28일 전했다.

지난해 큰 흥행을 이뤘던 쿠팡플레이는 주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두 팀을 제외하며 2년 연속 '여름밤 축구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탁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FIT[GOLFIT]

#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